

ANNE-SOPHIE
MURTER
LAMBERT ORKIS, PIANO

CREDIA MUSIC & ARTISTS

30th
CREDIA
1994-2024



© KRISTIAN SCHILLER

ANNE-SOPHIE
MUTTER

LAMBERT ORKIS, PIANO

2024.3.13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올린, 안네 소피 무터
피아노, 램버트 오키스

모차르트 1756-1791
오스트리아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사장조, KV.301

빠르게, 마음을 담아
빠르게

슈베르트 1797-1828
오스트리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다장조, D.934

매우 느리게
조금 빠르게
주제와 변주곡 -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 매우 느리게
처음 빠르기로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조금 빠르게
빠르고 성급하게

중 간 휴 식

클라라 슈만 1819-1896
독일

세 개의 로망스, Op.22

매우 느리게
조금 빠르게
빠르게 열정적으로

레스피기 1879-1936
이탈리아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P.110

보통 빠르기로
느리게 표현적으로
파사칼리아: 적당히 빠르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MS. MUTTER RECORDS FOR DEUTSCHE GRAMMOPHON AND IS AVAILABLE ON
SONY, EMI CLASSICS AND ERATO/WARNER CLASSICS.
SHELDON ARTISTS LLC
R. DOUGLAS SHELDON, MANAGING PARTNER
WWW.SHELDONARTISTS.COM WWW.ANNE-SOPHIE-MUTTER.DE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THE PREMIÈRE WATCH
ÉDITION ORIGINALE

CHANEL

7:30 PM Wednesday, 13 March, 2024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Anne-Sophie Mutter, Violin

Lambert Orkis, Piano

W. A. Mozart 1756-1791
Austria

Violin Sonata No. 18 in G Major, KV.301

Allegro con Spirito

Allegro

F. Schubert 1797-1828
Austria

Fantasy for Violin and Piano in C Major, D.934

Andante molto

Allegretto

Tema e Variazioni - Andantino - Adagio

Tempo primo

Allegro Vivace

Allegretto

Presto

CREDIA

I N T E R M I S S I O N

C. Schumann 1819-1896
Germany

Three Romances for Violin and Piano, Op.22

Andante molto

Allegretto

Leidenschaftlich schnell

O. Respighi 1879-1936
Italy

Violin Sonata in b minor, P.110

Moderato

Andante espressivo

Passacaglia : Allegro moderato ma energic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MS. MUTTER RECORDS FOR DEUTSCHE GRAMMOPHON AND IS AVAILABLE ON
SONY, EMI CLASSICS AND ERATO/WARNER CLASSICS.
SHELDON ARTISTS LLC
R. DOUGLAS SHELDON, MANAGING PARTNER
WWW.SHELDONARTISTS.COM WWW.ANNE-SOPHIE-MUTTER.DE

음악평론가 유정우와 함께 하는

북유럽 클래식 뮤직 크루즈 14일

ONLY!
Club
BALCONY

북유럽의 아름다운 백야,
현대 건축 걸작 공연장에서 최정상 아티스트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도시 탐험
2024.6.15~28

- 상품가 1인 1,740만원~ (현금가/아웃사이드 캐빈 2인 1실 기준 / 항공 별도)
- 여행지 함부르크·브레머하펜(독일), 스타방에르·베르겐·오슬로(노르웨이), 예테보리(스웨덴), 코펜하겐·올보르(덴마크)
- 공연 테오도르 쿠렌치스 &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미샤 마이스키, 다니엘 흐프 외
- 문의 클럽발코니 010-2098-5266 | 1577-5266 | www.clubbalcony.com



오늘 안네 소피 무터가 우리에게 풀어놓은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완숙한 시기의 첫 바이올린 소나타부터 낭만 말기의 레스피기까지, 약 150년의 여정을 안내한다. 이들을 엮는 전통이라는 매듭과 각 작품에 스며든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다른 정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장되고 연결된다. 그리고 이를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은 공감의 공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감동의 색깔로 질게 물든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사장조, KV.301

18세기 중반에는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하면 건반악기가 중심이 되고 바이올린이 이를 반주하는 구성이 많았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세 번째 손'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1791)가 10세 때까지 작곡한 초기 바이올린 소나타들이 이러한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성인이 된 모차르트는 1777년에 뮌헨과 만하임을 방문하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주 선율을 동등하게 주고받는 작품들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바이올린 소나타 작곡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저는 성실하게 '건반 이중주'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출판도 하고 싶어요." 그는 1778년 2-3월에 만하임에서 세 곡을 작곡했고, 여름에 파리에 서 세 곡을 추가로 작곡했다. 이 여섯 곡은 11월에 파리의 시베르(Sieber)에서 출판되어 모차르트의 '작품 1'이 되었다. 1783년 4월 4일 '음악 매거진'(Magazin der Musik)에 수록된 칼 프리드리히 크라머(Carl Friedrich Cramer)의 리뷰는 두 악기가 동등한 이중주를 지향하는 이 곡의 중요한 특징을 짚고 있다. "바이올린 반주와 피아노 패시지는 매우 예술적으로 결합했다. 이 소나타들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피아니스트만큼의 능력을 요구한다."

오늘 첫 곡으로 연주되는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1778)은 만하임에서 작곡된 세 곡 중 하나이다. 당시 그는 유능한 소프라노인 알로이자 베베(Aloysa Weber)에 반해 사랑에 빠져있던 때여서인지, 음악에 사랑의 기

쁨과 애뜻함이 한가득 들어있다.

1악장 '빠르게, 마음을 담아'. 베이스 페달과 화음 아르페지오의 피아노 반주를 배경으로 바이올린이 제1주제 선율을 연주하며, 이어서 피아노도 주제 선율을 재현한다. 뽀뽀는 듯 경쾌한 제2주제는 피아노에 의해 제시되고, 이 또한 바이올린이 뒤이어 반복하여 연주한다. 이렇게 두 악기가 뒤따라 연주하거나 같이 연주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한다. 이 두 주제를 기반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2악장 '빠르게'. 발랄하고 밝은 분위기의 미뉴엣이다. 사랑하는 알로이자와 춤추는 상상을 하며 작곡하지 않았을까? 중간 부분은 기쁨과 슬픔이 갈팡질팡하는 부점리듬의 시실리아노로 바뀌며, 다시 첫 주제로 돌아와 마무리한다.

프란츠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다장조, D.934

프란츠 슈베르트(1797-1828)는 그의 최후의 해인 182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해 1월에는 무려 다섯 개의 연주회에서 슈베르트의 곡이 연주되었는데, 이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슬라비크(Josef Slavik)와 피아니스트 칼 마리아 폰 보클레트(Carl Maria von Bocklet)의 음악회도 있었다. 이 음악회의 프로그램에는 12월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따끈한 신곡 <환상곡 다장조>(1827)도 포함되어 있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슬라비

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감격스럽게도 곧바로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평론가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다. “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잘못 작곡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 곡의 출판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세상을 떠난 후 1850년이 되어서야 출판되었다.

<환상곡 다장조>는 일곱 부분으로 나뉜다. 호수에 햇살이 반짝이듯 빠르게 움직이는 피아노 연주로 시작하고, 곧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노래 선율을 더하여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안내한다. 분위기를 바꿔 랩소디 풍의 경쾌하고 화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주제 선율을 두 악기가 대화하기도 하고, 돌림노래로도 진행되는 등 다양한 악곡 진행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곡 <당신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D.741>(1822)로부터 만든 선율의 긴 변주곡이 등장한다. 첫 주제를 비교적 낮은 음으로 다시 연주한 후, 승리의 함성과 같은 힘 있고 경쾌한 주제를 제시하고 화려하게 변주한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겨있는지 가곡 주제가 잠시 떠오르더니, 마치 일부러 떨쳐내려는 듯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 급히 마무리한다.

클라라 슈만

세 개의 로망스, Op.22

클라라 비크-슈만(1819-1896)은 라이프치히의 유명한 피아노 선생이었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배웠으며, 신동 피아니스트로 큰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라

이프치히와 베를린의 명망 높은 선생들로부터 작곡을 공부하면서 작곡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다부진 음악 교육을 받은 클라라는 11세에 ‘작품 1’을 발표했으며, 16세에 <피아노 협주곡>(1835)을 완성했고, 이후에도 피아노곡과 실내악, 가곡 등을 발표했다.

오늘 연주하는 <세 개의 로망스>(1853)는 음악적으로 완숙하고 로베르트 슈만과 꾸린 가정도 행복했던 1853년 봄과 여름에 작곡되었다. 초연자이자 헌정자는 22세의 촉망받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으로, 그는 초연 이후에도 이 작품을 자주 연주하며 작곡가 클라라를 기억하게 했다. 특히 이 곡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 작곡가의 작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당시에 이례적으로 ‘신 베를린 음악신문’(Neue Berliner Musikzeitung)에 비평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클라라를 통해 여성 작곡가의 위상이 한층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세 작품 모두 열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부드럽고 환상적으로 작곡되었다. 바이올린 선율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있고, 보완적인 응답 선율과 흥미로운 화음 및 반주 음형에서는 터치가 가볍다. 각 소곡은 매력적이어서 어떤 곡이 다른 곡보다 좋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첫 곡 ‘매우 느리게’는 우아한 아르페지오가 만발하는 피아노 반주에 바이올린이 꿈꾸듯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다. 편안한 분위기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애달픈 표정이 짐짓 보인다. 두 번째 곡 ‘조금 빠르게’는 두 악기가 감미롭게 대화를 나누며, 세 번째 곡 ‘빠르게 열정적으로’는 리듬을 이끄는 피아노 위에서 바이올린이 호흡이 길고 유려한 선율을 연주한다.

오토리노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나단조, P.110

볼로냐 출신의 오토리노 레스피기(1879-1936)는 11곡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며 푸치니를 잇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의 자존심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와 막스 브루흐에게 배운 관현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 덕분에 관현악곡 '로마 삼부작'이 그의 대표작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르네상스와 그 이전 음악에도 관심을 가졌고,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을 편곡한 '옛 노래와 춤곡' 시리즈는 오늘날 레스피기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주요 작품이 되었다.

이들로 볼 때,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1917)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로마 삼부작' 중 첫 곡인 <로마의 분수>(1916)와 <옛 노래와 춤곡 1번>(1917), <바이올린 소나타>는 연이어 작곡되었음에도, <로마의 분수>는 프랑스에서 불어온 인상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옛 노래와 춤곡 1번>은 르네상스 음악의 재현이며, <바이올린 소나타>는 고전적 형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기낭만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자신의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과적으로는 <바이올린 소나타>가 보여준 방향은 선택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렇기에 이 작품은 레스피기의 또 하나의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1악장 '보통 빠르기로': 비밀을 간직한 듯 음습하게 시작한다. 선율은 자유로운 리듬을 타고 발전하며,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직물을 짜듯 얽히며 진행된다. 이러한 스타일은 세자르 프랑크의 소나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고음 위주의 선율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극적인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비슷한 연배인 카를 시마노프스키를 떠올리게 한다. 열정이 가득 찬 대단원에 이른 후 평온하게 마친다.

2악장 '느리게 표현적으로': 화사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다. 하지만 바이올린이 등장하면서 점차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가고, 곧 다시 밝아지기를 반복한다. 쓰디쓴 현실 속에서 좋은 날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듯하다. 강렬한 열정도 내비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차분하게 마무리한다.

3악장 '파사칼리아': 적당히 빠르게, 그러나 역동적으로. '파사칼리아'는 바로크 시대에 사용된 양식으로, 저음에서 제시된 주제 선율이 반복되면서 고음 선율이 자유롭게 변주되는 형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먼저 피아노가 매우 중후하고 엄숙하게 저음 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바이올린이 더해져 피날레에 걸맞은 속도감과 에너지로 화려하게 변주한다. 서정적인 중간 부분에서 잠시 숨을 돌린 후, 다시 첫 부분의 분위기로 돌아온다. 기교적인 피아노의 활약이 돋보이며, 장중한 막바지로 돌진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안네-소피 무터 & 람베르트 오르키스

THE SILVER ALBUM

2CD



DS-01010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해있는 아티스트간의 협업은 매우 보기 드물다." Settle Times

1988년 12월 미국에서의 조인트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이어진 '현의 여제' 안네-소피 무터와 피아니스트 람베르트 오르키스의 25년간의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한 음반!

펜데레츠키가 무터에게 헌정한 곡인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라 폴리아', 작곡가 겸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이 무터에게 헌정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번'의 세계 최초 레코딩 등을 2CD에 수록

안네-소피 무터 & 무터 비르투오지

BACH • BOLOGNE • PREVIN
VIVALDI • WILLIAMS



4-08 5432

안네-소피 무터의 60세 생일을 기념해 열린 빈 무지크페라인 연주실황 음반

자신이 이끌고 있는 무터 비르투오지와 함께 한 앨범으로 비발디 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포함 존 윌리엄스의 작품 등 매력적인 앙코르 등 수록

ANNE-SOPHIE MUTTER



UNIVERSAL MUSIC CLASSICS



universalmusikoreaclassics



universalmusicclassickorea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리니스트

Anne-Sophie Mutter
Violinist



안네 소피 무터는 경이로운 음악가이자 비르투오소로 48년 동안 세계 주요 공연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주자이자 멘토, 그리고 선구자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4번의 그레미상 수상자인 무터는 고전작품들은 물론 음악의 미래를 위해서도 헌신해 왔는데, 토마스 아데스, 진은숙, 세바스찬 커리어, 앙리 뒤티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비톨드 루토슬라프스키, 노버트 모레,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앙드레 프레빈, 볼프강 림, 그리고 존 윌리엄스 등과 같은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 그녀에게 헌정한 곡을 연주하며 지금까지 31개의 곡을 세계 초연하였다. 또한 그녀는 재능 있는 미래의 음악가들을 후원하는 일과 수많은 자선 프로젝트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에는 <독일 암재단>의 비영리 기관 대표로 지명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루체른 페스티벌의 재단이사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1997년 가을 '안네 소피 무터와 친구들 재단'과, 2008년 '안네 소피 무터 재단'을 설립하였다. 이 두 기관은 재단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 개개인들에게 맞춤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무터는 2011년부터 재단의 장학생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인 '무터 비르투오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23년, 60세가 된 안네 소피 무터의 공연들은 그녀의 음악적 다재다능함과 클래식 음악계에서의 그녀의 남다른 위치를 짐작케 한다. 그녀에게 헌정된 수많은 작품들이 전세계에서 연주되었다. 2023년 1월, 무터와 "무터 비르투오지"는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에서 조셉 볼로냐 슈발리에 드 생 조르주, 진은숙, 비발디 프로그램으로 투어를 하였는데 이 중 진은숙의 '그랑 카덴차'는 무터에 의해 위촉된 곡이다. 6월과 8-9월의 무터와 "무터 비르투오지" 유럽 투어 프로그램은 J.S 바흐 외에 앙드레 프레빈, 비발디, 조셉 볼로냐 슈발리에 드 생 조르주 작품으로, 이 중 앙드레 프레빈의 '노네' 역시 무터를 위해 쓰여진 곡이다.

한편, 안네 소피 무터는 미국에서 안드리스 넬슨스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토마스 아데스의 '에어 - 오마주 투 시벨리우스'를 연주하였다. 이는 무터가 공동 위촉하고 작곡가인 아데스와 함께 2022년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초연했던 곡이다. 유럽에서는 리사이틀과 트리오 프로그램 공연이 진행된다. 브람스, 클라라 슈만, 베토벤, 세바스티안 커리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유령'과 함께 무터에게 헌정된 세바스티안 커리어의 피아노 트리오 '유령'이 초연된다.

2023년 그녀의 또 다른 핵심 공연은 존 윌리엄스 작품 전곡 연주이다. 무터는 그녀에게 헌정된 존 윌리엄스 바이올린 콘체르토 2번과 윌리엄스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선정하고 편곡한 그의 영화 음악 모음을 연주했다. 호주, 유럽, 뉴질랜드, 미국으로 이어진 이 투어에서 존 윌리엄스는 미국 공연에 지휘자로 특별히 합류했다.

2023년의 마지막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바이올린 콘체르토 2번 '메타모르포젠' 연주로 마무리했다.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이 공연은 2020년 타계한 펜데레츠키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것으로 폴란드 및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 '메타모르포젠' 역시 펜데레츠키가 무터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안네 소피 무터는 2023년 6월 루르 페스티벌상을 받았으며,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로부터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2022년에는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음악 아카데미에서 명예 박사를 수여받았다. 2019년, 무터는 프리미엄 임페리얼 (일본문화상)의 음악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6월에는 폴라뮤직상을 수상했다. 2018년 3월에는 독일인으로서 처음으로 폴란드로부터 문화 예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리아 아티스 골드 메달을 수여받았고, 그 해 2월에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의 명예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2017년 11월, 루마니아 문화 훈장과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코망데르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6년 12월, 스페인 문화체육교육부로부터 문화예술 골드 메달을 받았다. 2015년 1월에는 옥스포드 대학교 케블 칼리지의 명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3년 1월에는 바르샤바의 루토슬라프스키 협회로부터 훈장을 받은 후, 10월에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명예 외국인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아틀란틱 협의회로부터 예술 리더십 상을 받았고, 2011년에는 사회 활동에 대한 공로로 브람스 상, 에리히 프롬 상, 구스타프 아돌프 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2009년에는 유로피안 성 올리히 상과 크리스토폴 가바론 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국제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과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상을 수상했다. 안네 소피 무터는 독일 십자 훈장, 레지옹 도뇌르 상, 바바리안 공로 훈장, 오스트리아 공로 훈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Anne-Sophie Mutter is a musical phenomenon: for 48 years the virtuoso has now been a fixture in all the world's major concert halls, making her mark on the classical music scene as a soloist, mentor and visionary. The four-time Grammy® Award winner is equally committed to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composers as to the future of music.

So far she has given world premieres of 31 works – Thomas Adès, Unsuk Chin, Sebastian Currier, Henri Dutilleux, Sofia Gubaidulina, Witold Lutoslawski, Norbert Moret, Krzysztof Penderecki, Sir André Previn, Wolfgang Rihm, Jörg Widmann and John Williams have all composed for Anne-Sophie Mutter. She dedicates herself to supporting tomorrow's musical elite and numerous benefit projects. Furthermore,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German cancer charity "Deutsche Krebshilfe" elected her the new presid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n 2021. Since January 2022, she joins the foundation board of the Lucerne Festival. In the autumn of 1997 she founded the "Association of Friends of the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e.V.", to which the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was added in 2008. These two charitable institutions provide support for the scholarship recipients, support which is tailored to the fellows' individual needs. Since 2011, Anne-Sophie Mutter has regularly shared the spotlight on stage with her ensemble of fellows, "Mutter's Virtuosi".

Anne-Sophie Mutter's concert calendar in 2024 features performances in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once again reflecting the musical versatility of the violinist and her unprecedented standing in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Numerous compositions dedicated to her will be part of these concerts; in many countries, they will be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Mutter gave the British premiere of the Violin Concerto No. 2, which John Williams dedicated to her, as well as the Hollywood legend's film scores in London. Her musical partners were the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and conductor Jonathon Hayward.

At the end of January, concerts in Los Angeles followed, where she played the Brahms Double Concerto with cellist Pablo Ferrández, a fellow of her Foundation, as well as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under Gustavo Dudamel's baton.

She appeared at the Mozart Week in Salzburg with two programmes: the Sinfonie Concertante was performed with violist Michael Barenboim; Lahav Shani conducts the Vienna Philharmonic. For the four Piano Trios, she joined forces with pianist Lauma Skride and cellist Maximilian Hornung, an alumnus of her Foundation.

In March, Mutter tours Asia, where she rings in the 36th year of her musical collaboration with pianist Lambert Orkis. The programme includes works by Mozart, Respighi, Schubert and Clara Schumann. The two exceptional musicians will also perform this programme in Europ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illiams' Violin Concerto No. 2 will also have its first performance in Israel: in April in Haifa and Tel Aviv; in both cities, Mutter will also perform Beethoven's Violin Concerto.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Witold Lutosławski's death, in Warsaw Mutter will perform the orchestral version of the Partita, a work dedicated to her, as well as the Polish composer's Chain 2 and Interlude. Andrzej Boreyko conducts the Warsaw Philharmonic Orchestra.

Lutosławski's Partita will also be performed in Leipzig and in London, where it is combined with Tomas Adès' Air – Homage to Sibelius, which the composer dedicated to the violinist and which will have its German and British premieres. In Leipzig, Andris Nelsons conducts the Gewandhaus Orchestra; in the British metropolis, Thomas Adès conducts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During her June tour of Europe, Williams' Violin Concerto No. 2 is once more the focus of attention, and Mutter will perform it with the Dallas Symphony Orchestra under the baton of Fabio Luisi.

She will also perform film themes by Williams during the "Klassik am Odeonsplatz" event in Munich – with the Munich Philharmonic under the baton of Lahav Shani.

The Brahms Violin Concerto is on the programm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Europe with the West-Eastern Divan Orchestra. During another European tour, Mutter will play the Mendelssohn Violin Concerto together with the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and its music director Manfred Honeck.

Mutter concludes her 2024 concert year with Williams' Violin Concerto No. 2 as well as selected film themes – together with the Hollywood legend at the helm of the Chicago Symphony Orchestra.

In June 2023, Anne-Sophie Mutter received the Prize of the Ruhr Piano Festival, and the Royal Philharmonic Society honoured her with its Gold Medal. The Krzysztof Penderecki Music Academy in Cracow bestowed an honorary doctorate on her in March 2022. In 2019, Anne-Sophie Mutter was honoured to receive the Praemium Imperiale in the music category; in June she received the Polar Music Prize. Poland awarded the Gloria Artis Gold Medal for Cultural Achievements to Anne-Sophie Mutter in 2018, making her the first German artist to receive such an honour. In February 2018 the violinist was named an honorary member of the 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Romania award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 in the rank of a Grand Officer to Anne-Sophie Mutter in 2017; during the same month France honoured her by presenting her with the insignia of a Commander of the French Order of the Arts and Literature. In 2016, the Spanis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awarded her the "Medalla de oro al Mérito en las Bellas Artes" (Gold Medal for Merits in the Fine Arts). In 2015 Anne-Sophie Mutter was named an Honorary Fellow of Keble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Oxford. In 2013 she became a Foreign Honorary Member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after winning the medal of the Lutostawski Society (Warsaw) in January. In 2012 the Atlantic Council bestowed the Distinguished Artistic Leadership Award upon her. In 2011 she received the Brahms Prize as well as the Erich Fromm Prize and the Gustav Adolf Prize for her social activism. In 2010 the Technical-Scientific University of Norway in Trondheim bestowed an honorary doctorate upon her; in 2009 she won the European St. Ulrich Award as well as the Cristobal Gabarron Award. In 2008 Anne-Sophie Mutter was the recipient of the International Ernst von Siemens Music Prize as well as the Leipzig Mendelssohn Prize.

The violinist has been awarded the German Grand Order of Merit, the French Medal of the Legion of Honour, the Bavarian Order of Merit, the Decoration of Honour for Services to the Republic of Austria, and numerous other honours.



램버트 오키스 피아니스트

Lambert Orkis
Pianist

© SCOTT SICKMAN

램버트 오키스는 실내악 연주자, 현대 음악가, 원전악기 연주자로서 국제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1988년부터 줄곤 함께 작업해 온 안네 소피 무터 외에도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파트너로서 11년 넘게 한 무대에 섰다. 이런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공로 훈장을 받았다.

오키스는 첼리스트 린 하렐, 안너 빌스마, 다니엘 뮐러 쇼트, 파블로 페란데스, 막시밀리안 호롱, 아만다 포사이스, 타냐 테츨라프,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안 라홀린, 비올리스트 스티븐 댄 등과 함께 공연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또한 베르타보, 에머슨, 아메리칸, 멘델스존, 커티스, 그리고 맨체스트 등과 같은 현악 사중주단, 아카디아 윈즈 목관 오중주단과도 공연했다. 솔리스트로서는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레너드 슬래트킨, 라파엘 프리벡 디 부르고스, 귄터 헤르비히, 로버트 카펠로우, 레온 플라이셔, 케네스 슬로빅 등과 공연했다.

그레미상 수상자이자, 여러 번 후보에 오른 바 있는 오키스의 폭 넓은 음반 리스트들은 고전과 낭만, 현대 작품들까지 다양하다. 안네 소피 무터와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자주 녹음작업을 했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로 그레미상을,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로 쇼크상을 수상했다. 2022년 11월에는 파블로 페란데스와 녹음한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 트리오 앨범이 소니클래식 레이블로 발매되었다. 또한 첼리스트 안너 빌스마와 브람스, 슈만 그리고 쇼팽/프랑슈의 작품들을 녹음했으며(소니클래식), 비올리스트 스티븐 댄과 함께 브람스의 작품들을 녹음했다(ATMA 클래식). 또한 그는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조지 크럼, 앙드레 프레빈, 리처드 워닉, 세바스찬 커리어, 스테판 자페, 제임스 프 라이모쉬를 포함하여 수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하고 녹음했다. 내셔널 교향악단의 수석 첼리스트 데이비드 하디와 함께 소노 루미너스 레이블을 통해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전곡을 현대악기와 원전악기 모두를 사용하여 연주하기도 했다.

호주 뮤지카 비바 페스티벌에 특별 아티스트와 교수로서 참여했고, 트론헤임 국제 실내악 콩쿠르/페스티벌에도 심사위원과 연주자로 세 차례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국 카네기홀 국제 음악 콩쿠르의 피아니스트 부문과 케네디 센터 프리드하임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오키스는 대만의 뉴 액세스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의 명예 아티스트이며, 타이베이에서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그는 케네디센터 실내악 단원이자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캐슬 트리오(Castle Trio)의 원전악기 연주자로 연주 및 녹음 작업을 해왔다. 동시에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피아니스트이며,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오키스는 폴란드 피아니스트 마리안 필라르와 전설적인 엘레노어 소콜로프의 가르침을 받았다.

Lambert Orkis has receiv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chamber musician, interpreter of contemporary music, and performer on period instruments. He has appeared in recital with violinist Anne-Sophie Mutter since 1988 and had performed with cellist Mstislav Rostropovich for more than eleven years. In acknowledgment of his accomplishments, he was honored with Germany's Cross of the Order of Merit.

His distinguished career also includes major recital appearances with cellists Lynn Harrell, Anner Bylsma, Daniel Müller Schott, Pablo Ferrández, Maximilian Hornung, Amanda Forsyth and Tanja Tetzlaff, violinist Julian Rachlin, and violist Steven Dann, and he has performed with the Vertavo, Emerson, American, Mendelssohn, Curtis, Manchester, Goldner, and Elias String Quartets, and the Arcadia Winds. As soloist he has made appearances with conductors including Christoph Eschenbach, Mstislav Rostropovich, Leonard Slatkin, Rafael Frühbeck de Burgos, Günther Herbig, John Mauceri, Robert Kapilow, Leon Fleisher, Kenneth Slowik, and others.

A Grammy Award winner and multi-Grammy Award nominee, his wide discography comprises works of the classical, romantic, and modern eras on many labels. With Anne-Sophie Mutter, he has frequently recorded for Deutsche Grammophon, winning a Grammy Award for Best Chamber Music Performance for the Beethoven piano and violin sonatas, and a 2006 Choc de l'année award for the Mozart piano and violin sonatas audio recording. Released by Sony Classical in November 2022 is a recording of Clara Schumann's piano trio with cellist Pablo Ferrández. He has also recorded works of Brahms, Schumann, and Chopin/Franck with Dutch cellist Anner Bylsma for Sony Classical/Vivarte, and with violist Steven Dann he appears on an ATMA Classique disc of works by Brahms. Mr. Orkis has premiered and recorded works of numerous composers, including Krzysztof Penderecki, George Crumb, André Previn, Richard Wernick, Sebastian Currier, Stephen Jaffe, and James Primosch. With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s principal cellist David Hardy, and using both modern and period instruments, he performs Beethoven's cycle of works for piano and cello on the Sono Luminus label.

He premiered in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in Washington, D.C. Wernick's Piano Concerto which was written for him,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Washington and, as conductor, Mstislav Rostropovich. For the Bridge Records recording, Mr. Orkis is paired with Symphony II of Chicago. The European premiere took place with Mr. Orkis and Het Residentie Orkest of The Hague, The Netherlands. In both instances, the composer conducted.

Appearing regularly at the most prestigious festivals throughout the world, he has twice been engaged as distinguished performing artist and teacher for Australia's Musica Viva Festival. Three times he has served as juror of and performed for the Trondheim Inter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 and Festival, most recently as chairman of the jury as well as performer. The Carnegie Hall International American Music Competition for Pianists and the Kennedy Center Friedheim Awards Competition have engaged him as adjudicator. As an Honored Artist for Taiwan's New Aspect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 performed and presented master classes in Taipei.

Mr. Orkis is a founding member of the Kennedy Center Chamber Players and the Smithsonian Institution's Castle Trio (period instruments), and holds the positions of principal keyboard of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in Washington, D.C., and Professor of Piano at Temple University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Mr. Orkis owes much of his musical life to the guidance of Polish pianist Maryan Filar and the legendary Eleanor Sokoloff.

CREEDIA

Article 1

5년 만에, 바이올린 여제의 귀환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Article 2

포토에세이 - 사진으로 보는 안네 소피 무터의 60년



CREDIA

ANNE-SOPHIE
MUTTER

LAMBERT ORKIS, PIANO

5년 만에, 바이올린 여제의 귀환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안네 소피 무터. 카라얀의 총애를 받던 신동으로, 이후에는 최정상의 음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가 어느덧 60세를 맞았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쉼 없이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명실상부 클래식 음악을 대표할 만한 음악가다. 스타는 최정상의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스토리와 본인의 카리스마와 이미지, 미디어의 지속적인 후원, 그리고 열광하는 팬덤이 더해져야 한다. 무터는 여전히 스타다.

1963년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지역 시골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넉넉한 집안에서 악기를 배웠다. 처음엔 피아노였으나 이윽고 바이올린으로 갈아타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열 살 전후 당시의 영상을 보면 통통한 아이가 바이올린을 척척 요리하는데, 이 겁 없는 아이는 열세 살에 베를린 필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만나 오디션을 보았다. 그녀의 천재성을 인정한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에 불러 협연하고 1978년에는 DG 레이블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5번을 녹음한다. 열다섯 살의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열다섯 소녀가 환갑을 넘기는 동안 슬럼프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면적인 슬럼프가 없었을 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다. 나이를 먹다 보면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육체를 일반인과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연주 여행이 일상인 음악가들은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무터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

내면적인 어려움은 여러 번 있었을 터이다. 첫 번째 스승이었던 에르나 호니그베르거는 카를 플레시의 제자로, 그녀가 결혼한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베를린을 떠나 슈바르츠발트 지대까지 이사를 온 것은 무터에게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녀는 꼬마 무터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딱 맞는 레퍼토리를 가르쳤다. 그녀는 무터가 아홉 살 때 세상을 떠지만 무터는 아이다 스투키를 만나 또다시 음악적 도약을 하게 된다.

첫 번째 남편을 잃은 충격은 아마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스물다섯 살, 한창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가던 시절 무터는 스물일곱 살이 더 많은 금용변호사 데틀레프 분덜리히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결혼 생활은 6년 만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끝장났다. 놀랍게도 무터는 장례를 치른 다음 달부터 연주 여행을 떠났고,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웠다. 1988년부터 실내악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와 무터는 아이들이 놀거나 기어 다니는 바로 옆에서 연습을 했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공중전화든 백스테이지든 어디서나 아이들과 통화를 했고,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주말에는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연주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렇게 무터는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켜 나가면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화려한 커리어를 일구어 냈다.

특유의 화려한 기교와 결점 없는 음색

무터는 자신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면서도 레퍼토리를 늘려 나갔다. 처음에는 모차르트에서 차이콥스키까지의 고전과 낭만 레퍼토리로 시작했다. 바로 카라얀이 죽기 전까지 그녀와 녹음했던 협주곡들이 그런 것들이었다.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브루흐, 브람스, 차이콥스키 등에 당시의 상업적 요구까지 더해져 비발디의 <사계>와 같은 음악도 녹음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그녀는 점점 레퍼토리를 현대음악까지 확장했다. 볼프강 림, 루트스와프스키, 뒤티외, 펜데레

초키, 구바이둘리나, 조지 크럼, 외르크 비트만 등이 그녀의 레퍼토리로 들어왔다. 2021년 한국 작곡가 진은숙은 무터의 위촉으로 '그랑 카덴차'라는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곡을 쓰기도 했고 이렇게 무터가 위촉한 작품은 31곡에 이른다. 최근 그녀의 주요 레퍼토리는 영화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들과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이다.

1989년 카라얀이 타계했지만 무터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90년대 초반의 <카르멘 판타지>는 그녀의 화려한 스타일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앨범이고, 이어진 베토벤 소나타 전곡 녹음,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90년대 후반의 <비발디의 사계>는 비주얼 시대를 맞이한 클래식 음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1세기에는 두 번째 남편인 지휘자 겸 작곡가 앙드레 프레빈과 호흡을 맞춘 일련의 앨범 외에도 모차르트 협주곡과 소나타, 피아노 3중주를 모두 녹음해서 작곡가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했고, 드보르자크 음반으로 만장일치의 호평을 얻기도 했다. 모두 자기만의 스타일을 밀고 나간 결과물들이다.

중년을 넘기면서 무터는 부쩍 사회적 의미를 찾는 활동을 늘려 나갔다. '무터 비르투오지'를 결성해서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그들과 투어를 다닌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은 단짜과도 같은 사이이고, 첼리스트 김두민과도 실내악을 함께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음악가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의미가 있는 자선 콘서트도 비중이 높아졌다. 1997년 시작한 무터 재단을 통해 다니엘 뮐러호프, 세르게이 하차투리안, 아라벨라 슈타인바허 등이 혜택을 입었다.

무터가 보여 줄 바이올린 음악의 품격

호기심은 경탄으로, 또 존경으로 바뀌면서 세월이 흘렀다. 아이다 스투키에게서 배웠던, 소노리티를 위한 테크닉들이 전성기 스트라디바리 '로드 던 레이브'과 만나서 빛어내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와 <비발디의 사계>에서 들을 수 있는 낭만적이며 주관적인 음악 해석은 여전하고, 경륜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무대 매너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또 한 번의 내한 공연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3월 내한 공연에서 무터는 자신이 아끼는 레퍼토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첫 곡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G장조로, 2악장의 짧은 음악이지만 모차르트의 매력은 차고도 넘친다. 뒤이은 슈베르트 판타지가 대단한 곡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지만 이 곡은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모두에게 손꼽히는 난곡이며, 무터 역시 그렇게 말한 바 있다. 기교를 신경 쓰면서 슈베르트답게 연주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무터는 기나긴 커리어에도 이 곡을 녹음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그녀의 연주를 기대하게 된다.

후반부 첫 곡, 클라라 슈만의 세 개의 로망스는 모르고 지나치기엔 아까운 아름다운 음악이다. 클라라는 한참 어린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 작곡가 브람스 등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곡은 요아힘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둘은 많은 콘서트에서 함께 연주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3개의 악장 모두가 각각 빛나는 데 방긋 웃게 되는 2악장, 사랑스러운 3악장을 듣다 보면 남편 슈만의 사후 사실상 작곡에서 손을 떼고 수십 년을 살았던 그녀의 재능이 안타깝게 느껴질 것이다.

레스피기 소나타 역시 우리에게겐 정경화-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음반으로 조금은 친숙하다 할 수 있지만 대중적인 레퍼토리는 아니다. 다만 무터는 이 곡을 좋아하고 자주 연주하는 편으로 2016년 내한 때에도 연주한 바 있다. 특유의 거칠거칠한 보잉과 비브라토, 낭만적인 루바토와 격정적인 다이내믹으로 풀어냄으로써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곡의 매력을 전달한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맞부딪치며 달려 나가는 듯한 마지막 파사칼리아 악장은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팔순을 바라보는 파트너 램버트 오키스와의 호흡도 기대할 만하다.

무터는 '모래 한 알에서 세상을 보고 /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 당신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 한 시간에 영원을 잡으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구를 모토로 삼는다고 한다. 음악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그것이 아닐까. 무터의 음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포토에세이

사진으로 보는 안네 소피 무터의 60년

사진/내용 출처: 안네 소피 무터 홈페이지[anne-sophie-mutter.de]

1972



첫 연주, 빈터투어 시립 오케스트라 (현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연주

1976.8.23

루체른 페스티벌 데뷔

1978



첫 레코딩 with 도이치 그라모폰
카리안의 지휘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5번 녹음

1983

옥스포드 대학 모차르트 협회(Mozart Society)의 명예 이사 임명

1987

유럽의 젊은 연주자들을 후원하는 루돌프 에베를레 재단
(Rudolf Eberle Trust)을 설립, 후에 안네 소피 무터 재단으로 통합



카라얀과의 마지막 콘서트 *카라얀 1989년 사망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1988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와 만남



제임스 레바인의 지휘로 빈 필하모닉과 녹음한 카르멘 판타지 앨범 발매
도이치 그라모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

1993



베토벤 소나타 전국 앨범 발매
이 앨범으로 예코클래식상과 그래미상 수상

1998

2001



뉴욕 카네기홀 상주음악가로 선정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연주

2002



무터를 위해 헌정된 앙드레 프레빈, 앙리 뒤티에의 곡 초연

2005

앙드레 프레빈, 번스타인 작품을 녹음한 앨범으로 그래미상 수상

2006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무대
램버트 오키스와 녹음한 바이올린 소나타 앨범 발매

2008

플라음악상과 함께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수상

2011



루체른 페스티벌 데뷔 35주년
이를 기념하여, 무터 재단이 후원하는 14명의 젊은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무터 비르투오지와의 월드 투어



실내악 파트너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와 25주년

2014



루마니아 문화 훈장과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코망데르 훈장 수여

2017



플라음악상 수여

2019



안네 소피 무터 60세 기념 다양한 공연들이 열림
무터에게 헌정된 존 윌리엄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연주
루르 페스티벌상 수여,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로부터 금메달 수여

2023

2024

정명훈 &

도쿄필하모닉 내한공연

05
09
THU
19:30

Beethoven

삼중 협주곡 C장조

협연 Piano 정명훈 Violin 이지혜 Cello 문태국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Soprano 황수미 Mezzo-Soprano 김정미

Tenor 박승주 Bass Baritone 사무엘 윤

Choir 연합합창단 | 안양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계룡문화예술회관·대극장

ALL 패키지

2024 싱가포르 문화여행 3박 5일

ONLY!
Club
BALCONY

- 일정 3박 5일 (2024년 6월 26일(수)~30일(일))
- 호텔 5성급 호텔 3박 (인터컨티넨탈 싱가포르 로버슨 키 예정)
- 항공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기준
- 공연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6/28 오후7시30분 에스플러네이드 콘서트홀) 최상위석
- 가격 1인 3,690,000원 (공식 항공편 포함)
- 문의 클럽발코니 1577-5266 / 010-9799-5266



클럽발코니의 2024년 6월 싱가포르 여행은 예술과 문화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상위석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리사이틀을 감상하고, 리츠칼튼 애프터눈 티 뷔페에서 이지영 칼럼니스트의 특별 렉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 식물원 보타닉 가든부터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파크까지. 싱가포르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세요!





SUBLIMAGE
LES EXTRAITS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강력한 리페어 효과

CHANEL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